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녹) 연중 제14주일

2023년 7월 9일 (제2040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즈카르야 9,9-10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1 참조)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9,11-13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1,25-30

영성체송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성가]	8시	입당 337	봉헌 210	성체 180	파견 82		
	11시	입당 329	봉헌 214	성체 197, 152	파견 21		
연중 제14주일	7월 9일(일)		7월 11일(화)	7월 12일(수)	7월 13일(목)	7월 14일(금)	7월 1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황혜정 데레사	채성일 토마스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안나/요아킴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설재훈 스테파노 오자영 효주아네스	이명국 바오로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안나/요아킴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7월 성시간

- 7월 13일(목) 저녁미사 후

■ 7월 봉성체

- 7월 12일(수) 실버구역
- 7월 13일(목) 버클리구역/재활센터
- 7월 14일(금) 유니언구역

■ 예비신자 모집 및 교리

- 예비신자 모집/교리 신청: 7월 30일(일)
- 예비신자 교리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7월 15일(토) 11시 미사 : 안나요아킴회
- 안나요아킴회가 미사 후에 있습니다.
- 당일 안나요아킴회에서 점심 봉사를 준비해주시고 사목회에서 장어구이 봉사를 맡아주었습니다.

■ 오늘 교종미사는 춘천교구 사회사목국장 겸 사회복지회장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이 집전하십니다.

■ 회의 안내

- 구역장 회의 : 7/9(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6호
- 재무평의회 : 7/9(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107호
- 사 목 회 의 : 7/9(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106호

■ 구역 모임 안내

- 오클랜드: 7/16(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프리몬트: 7/16(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알바니: 7/16(일) 오후 2시, Memorial Park
- 유니언: 7/23(일) 오후 1시 강실비아 댁
- 캐스트로벨라: 7/29(토) 오후 5시 김현규암브로시오 댁

■ 황금빛인생 일일행복여행

- 일시 : 9월 5일(화) 오전 11시
- 자세한 일정은 다음주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한서연 수산라, 박영자 마리아,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 성경 통독

- 7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1,1 - 43,33)
- 성경필사노트를 성물방에서 교환해가세요.

■ 이스라엘 성지순례(11월 8일 출발) 모임

- 일시: 8월 13일(일), 오후 1시, 성당
- 이스라엘 성지순례 설명회 및 성지순례 참여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 안내

■ 밥나눔 안내

- 메뉴 : 춘천닭갈비, 떡만둣국, 순두부찌개, 콩국수, 마파두부, 옥수수빵, 비빔밥, 만둣떡볶이, 컵라면, 커피/음료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철오- 오일사철)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신청

- 8/12(토) 오전 8:30~오후 6:00 본당
- 참가자 접수 중(친교실)
- 각 가정 기도 및 사업체 기도 신청(마감일 7월 9일)

■ 서중부 여성 14차 꾸르실료 주말

- 일시 : 7월 20일 - 23일(3박 4일)
- 문의 : 이경란 베로니카 (오일공-육팔팔-공일오오)
- * 친교실에서 빨랑카를 받고 있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영화 상영을 준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사목회와 빛자루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베네딕토(7/11): 조관식, 임석호
- *베네딕타(7/11): 정수영, 정정식
- *베로니카(7/12): 유낙양, 이경란, 송일란, 이성연, 김복희, 하숙연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중하며 은총 베푸시는 하느님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능동적인 수동성, 선택 받기를 선택하는 삶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주도권은 하느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뤄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눕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 만큼을 주신다."(시편 127,1-2)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은총 역시도 하나의 신비여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은총을 "하느님의 자녀 곧 양자가 되고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며 거저 주시는 도움"(『가톨릭교회교리서』 1996항)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호의와 도움,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고, 또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까요? 우리 자신의 의도나 계획, 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정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이제 막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바뀐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자동차 한 대가 급하게 횡단보도로 질주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를 보지 못한 채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섭니다. 여차하면 차에 치여 크게 다칠 만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제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있게 만듭니다. 그대로 두면 차에 치일 것은 뻔한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은총이라기보다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삶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도 하느님의 이러한 초자연적 개입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외적인 방법이 은총이라기보다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하느님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주어지고 작용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삶을 '은총에 이끌린 삶'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느님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느님 은총의 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학의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킨다"(『신학대전』, 제1부, 제1문, 8, 2)라고 가르치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명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총은 본성을 전제하며 완성시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성은 모든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동물과 다르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지적 능력, 정서, 의지, 양심, 판단, 숙고된 행동, 영적인 감수성 등이 있지요. 물론 이런 여러 특성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할 수 있죠.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적어도 지성과 정서, 의지라는 측면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전제하며, 오히려 완성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들을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성격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거나 통제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지적 능력을 갑자기 올려준다거나,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한 사람의 양심을 순식간에 키워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은총이 본성을 전제한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각자의 인간적 본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은총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우리 각자도 자기 본성의 능력으로 협력할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왜 우리 인간 본성의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랑의 속성 자체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영어미사(토)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1명	50명	151명	232명

주일 헌금		2차 헌금		영어 미사	교무금	감사 헌금	성소	황금빛 인생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박호영(7), 윤춘주(1-12), 임윤택(6), 김원덕(7), 이재우(7), 강수영(7), 조진행(7), 전문자(7), 윤순의(3-6), 이영기(4-6), 천종욱(7), 황혜정(7-12), 정일량(7), 김영길(7), 이명란(7), 최명주(7), 김옥자(5-9), 한동설(1-12), 조용숙(7), 박부기(7-9), 황현숙(7-9), 이정연(7)					양인심	임윤택, 김옥자, 이명란, 최명주	육아가다 본당신부님	이명란, 최명주, 조우송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7/09(일)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7/09(일)	생	주임신부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생	김미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부르스 아론조 발바리	전데레사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안젤로	한안젤라
	연	김형준 시몬	김영미 클라라		생	한동설 안젤로	한동설 안젤로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실버반 모든분	이영기 마테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네스가족	7/11(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연	John Blain	채토마스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연	정연희 마리아	채 줄리아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이명희 엘리사벳	채 줄리아
	연	정미카엘	가족	7/12(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마르코	가족		연	John Blain	채토마스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연	정연희 마리아	채 줄리아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이명희 엘리사벳	채 줄리아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생	송일란 베로니카	정일양 안드레아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생	유낙양 베로니카	조프란치스코
	연	박영실 데레사	양수산나		생	이성연 베로니카	조프란치스코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양수산나	7/13(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이영기 마테오		연	John Blain	채토마스
	연	신정옥 마리아	신정렬 올리에다		연	황문환 마르코	김엘리사벳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네스가족		연	정연희 마리아	채 줄리아
	연	이흥태 알비나	이에스터		생	우헨리코 신부님	이에스터
	연	황문환 마르코	김정희 올리안나		생	이명희 엘리사벳	채 줄리아
	생	송아네스/장민우 가정	천종욱 다니엘	7/14(금)	연	John Blain	채토마스
	생	이베로니카/레이몬드 가정	천종욱 다니엘		연	정연희 마리아	채 줄리아
	생	전데레사/ 전알렉스 가정	천종욱 다니엘		생	이명희 엘리사벳	채 줄리아
	생	황해은 엘리비	김관숙 크리스티나	7/15(토)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레산델/스텔라
	생	이성연 베로니카	신정렬 올리에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영순 쟈마	신우현 빈첸치오		연	정연희 마리아	채 줄리아
	생	박영자 글라라	신우현 빈첸치오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선비	신우현 빈첸치오		연	John Blain	채토마스
	생	천다이엘/아네스 가정	전윤자 데레사		연	박복임 마리아	이명란 아네스
	생	조바실리오/모나셀라	전윤자 데레사		연	염명선 말가리다	이명란 아네스
	생	이영기 마테오	심데레사		생	박호영 헬레나	송아네스
	생	성령기도회	심데레사		생	황호규 가정	전윤자 데레사
	생	차아름 루시아	차영화 리디아		생	이명희 엘리사벳	채 줄리아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리 ☎(510)236-0550 강요한</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	---	--	--	--